



믿음 주는 환자중심 병원

고대구로병원뉴스

발행인 은백린 발행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TEL 1577-9966 FAX 02-2626-2275 홈페이지 http://guro.kumc.or.kr 편집, 디자인 홍보팀 02-2626-2270 발행일 8월 18일 월간



전공의 수련 질 향상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고대구로병원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

고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이 7월 12일(수)부터 21일(금)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실시된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수련환경평가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병원 신입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전공의 수련 질 향상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이다.

수련 제도와 수련 과정 확인, 수련 규칙 이행여부 평가 및 병원운영 체계, 진료부서체계, 수련행정체계 등 병원의 전반적인 수련 환경 실태와 환자 안전 활동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고대 구로병원의 내과 및 신경과는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전공의 교육 수련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에 따른 실행상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간호부는 평가항목에 따라 업무현황과 규정이 근거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이 깔끔하며

세부적인 것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해 매우 자세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어서 의무 기록 처방 연계 시스템이 정말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은백린 병원장은 "고대 구로병원은 앞으로도 민족의 병원으로서 후학양성이라는 책임과 소명을 다 해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수련환경을 만들고 우수한 인력 양성에 힘써주신 모든 교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수련수 이창희 부장은 "평가결과와 개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우수한 의료인을 배출하는 수련병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은 고려대의료원 산하 안암, 안산 병원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3개 병원 공동 수련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기동 중이다. 또한 구로병원만의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하

여 현장에 접목시켜 전공의와 인턴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서남부권 최초 개소, 고대 구로병원 감마나이프센터 수술 100례 달성

고대 구로병원 감마나이프 센터(센터장 권택현)가 7월 19일(수) 수술 100례를 달성했다. 감마나이프 센터는 지난 2월 20일 권역 내 뇌종양 및 뇌전이암, 뇌동정맥기형 환자들의 효과적이며 안전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 서남부권 최초로 최첨단 방사선 뇌수술 장비 감마나이프 퍼섹션을 도입하고 첫 진료를 시작했다.

이는 서울 서남부권 최초, 고려대의료원 산하 병원 중 유일한 행보다. 현재 고대 구로병원은 서울 서남부권과 고대의료원을 잇는 뇌신경질환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리고 개소 약 5개월 만에 수술 100례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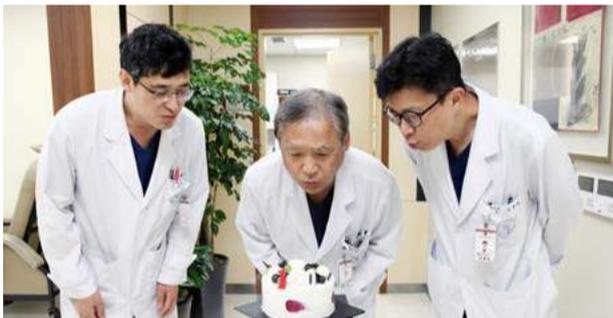
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며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두개골이나 두피를 절개하지 않고 강한 감마선을 이용해 뇌종양 및 뇌전이암, 뇌동정맥기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MRI 검사를 바탕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고선량의 192개 감마선을 조사해 정상뇌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고 뇌 절개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치료한다. 방사선을 뇌 전체에 조사하던 기존 방사능 치료와는 달리 선별적 치료가 가능해 안전하고 치매와 같은 부작용 발생 확률도 매우 낮다.

또한 고령자나 뇌혈관 질환자들도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

권택현 센터장은 "고대 구로병원 감마나이프 센터는 앞으로도 관련 과와 지역병원들과 함께 유기적 진료 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진료·검사·치료계획 수립·수술 및 퇴원 후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자 맞춤 프로세스를 가동해 나갈 것이다"라며 "서울 서남부권 유일의 감마나이프 센터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뇌신경질환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연구 목적에 맞는 양질의 데이터 관리 KU-Medical Image Data Center 개소

고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이 지난 7월 17일(월) 의료 영상 데이터 센터 'KU-Medical Image Data Center'를 개소했다.

의료 영상 데이터센터는 병원 내에서 촬영된 다양한 종류의 의료 영상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 테두리 내에서 수집, 가공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뱅크 역할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의료 영상 데이터는 개인의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에는 연구자 개인이 일일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센터 구축으로 대용량의 의료 영상을

자동 비식별화하고 분류, 가공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데이터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대 구로병원 의료 영상 데이터센터 이창희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최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능형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규모의 의료 영상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센터 개소 및 관련 심포지엄 개최를 시작으로 고대 구로병원은 의료 융복합 연구에 매진해 의료 영상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의료 영상 데이터 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 성료

같은 날 암병원 1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KU-Medical Image Data Center 개소 심포지엄'에는 의료 영상 데이터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담당자, 개인 연구자들이 모여 의료 영상 빅데이터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안전성과 효율성 재고를 위해 심도 깊은 토의를 펼쳤다.

이번 의료영상 데이터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은 총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의료 영상 데이터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담당자, 개인 연구자 약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 영상 데이터의 비식별화, 분류, 가공 등 미국 FDA 임상시험 영상 활용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 밝혔다.

폐암 수술, 국내 정상 자리 우뚝!

- 흉강경 영상 유도 수술법 도입
- 로봇수술기만을 이용한 폐암 수술 성공
- 싱글포트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 수술 시행

한국인의 암 사망률 1위는 폐암이다. 5년 생존율도 23.5%에 그친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예기가 달라진다. 생존율을 90% 넘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대 구로병원 폐암센터는 조기 진단과 맞춤 치료를 겨냥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진단·치료·연구 역량이란 3박자를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폐암 치료의 핵심 중 하나는 수술이다. 암을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폐 기능은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려면 수술이 좀 더 정교해야 한다. 초기 폐암환자에게 많이 시행하는 흉강경 수술은 보통 3개의 구멍을 뚫어 진행한다. 고대 구로병원 폐암센터는 2~4cm 크기의 구멍 단 하나로 수술한다. 수술법에 능통한 의사여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 만큼 환자의 만족도는 높아진다.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상처와 통증 범위가 확 줄어든다.

최근엔 흉강경 영상 유도 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증강현실과 나노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암 주위에 염증이 있거나 초기 암은 정상 조직과 구분이 어렵다. 이럴 때 나노 형광물질을 주입해 암이 도드라져 보이게 한 후 이미지를 입히면 암을 명확하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국내 최초로 로봇수술기만을 이용한 폐암 수술에 성공했다.

기존 폐암 로봇수술법은 일반 개흉수술보다 절개부위가 작고 수술

후 통증이 적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수술과정 중 폐 혈관 및 기관지와 같은 중요부분의 절제 및 봉합은 로봇수술기로는 할 수 없어 수술을 중단 한 후 다시 흉강경용 수술기구를 이용해 집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고자 최신 개발된 특수 장비를 이용했으며, 폐 조직 박리뿐만 아니라 혈관 및 기관지 절제 수술까지 단번에 시행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집도해 냈다.

이번 성과는 제 25차 아시아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 (The 25th Annual Meeting of the Asian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d Thoracic Surgery, ASCVTS 2017)에서 세계 50여 개국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됐다. 

[도움말 폐암센터 김현구 교수]



다빈치 로봇수술이란?

다빈치 X는 기존 수술 로봇 보다 10배 이상 커진 3차원(3D)화면을 지원한다. 3D HD 영상을 직접 보면서 좁은 공간에서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특수 로봇 팔을 이용해 정밀하고 능숙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복강경 수술처럼 길고 큰 절개가 아닌 몇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을 진행하므로 수술 상처가 작고 출혈 및 감염, 부작용 등의 발생 위험이 낮다.

특히, 고대 구로병원 로봇수술센터에서는 단일공 수술이 가능해 거의 흉터가 남지 않아 담낭절제술, 위절제술, 대장절제술 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빈치 로봇수술 장점?

- ① 3D HD 영상장치로 보다 선명하고 넓은 시야 확보
- ② 좁은 공간에서도 360도 회전 가능한 로봇 팔 사용으로 정확한 수술
- ③ 정교한 조작으로 조직 손상 및 부작용 최소화
- ④ 작은 절개로 수술 통증 및 흉터 최소화
- ⑤ 출혈, 감염, 합병증 발생 위험 최소화
- ⑥ 개복 수술에 비해 빠른 회복 기간, 짧은 입원 기간



뉴스레터 [환자 중심의 병원 부서를 만나다] 국제진료파트



Q1. 국제진료파트는 정확히 어떤 부서인가요?

일반적으로 국제진료파트는 크게는 '외국인'이 고대 구로병원을 내원했을 때 불편함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파트이고, 좁게는 소위 말하는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진료 지원, 사후관리를 하는 파트입니다. 현재 저희 구로병원 국제진료파트는 건강보험이 있는 외국인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제한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외국인 환자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저희가 하는 일은 '견적회신' 예를 들어 '8세 남아야 간뇨' 혹은 '간암이래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환자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관련검사, 예상 치료비용, 기간, 예상되는 타과 진료 등을 정리하여 회신합니다. 국제파트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질환은 교수님을 찾아뵙고 의견을 받아 회신하기도 합니다.

환자를 위해 하는 일이 견적 작업이라니 의외이신가요? 사실 외국인환자가 내원하면 내국인 진료 프로세스에서 통역사가 따라 붙는다는 것 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즉, 외국인 환자를 위해 원내 모든 선생님들께서 애써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진료파트의 핵심기능인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대해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빠르고 정확한 치료계획서 회신이 중요한 요소거든요.

물론 그 이외에도 비자발급, 교통/숙박 예약, 쇼핑/관광 안내 등 진료 이외의 서비스, 통역사 관리까지 국제진료에서 외국인환자를 위해 하고 있는 업무는 무궁무진합니다.

Q3. 국제진료파트에서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병원 국제파트는 지난 2월부터 전담직원 1명이 배치되어 센터를 구축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대외적인 사업보다는 '최소의 리스크로 최대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OS 국가(러시아어권) 환자를 위한 각종 브로슈어 및 소개자료를 다국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 자료의 단순 번역에서부터 구로병원 전략 포인트를 분석하고 홍보 방안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각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주요 에이전시 구축

을 통해 외국인환자를 확보하고 인터넷서널택시, 숙박, 환전, 관광 등 컨시어지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환자 편의시설 제공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6년 기준으로 구로병원을 내원한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 무려 43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타까운 현실은 내원하는 외국인을 응대할 수 있는 통역 지원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국어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습니다.

Q4. 지금까지 만난 환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나요?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70세의 물리학자이셨는데, 백혈병 진단받고 1년 고박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가며 골수이식까지 받으셨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격리실에 계실 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도 도리어 매일 저의 안부를 물으시고, 본인의 치료식인 말고기 수육도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본국에서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해외 환자들 중에 한국에서 치료가 잘 되어도 본국에서 대처가 잘 안돼 잘못되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이 분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다 기억해요. 우리나라 환자들도 사연 없는 분들 없듯이 해외 환자분들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있으시거든요...

Q5.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은?

제가 올해 2월 입사하여 업무를 배우면서 보니 그동안 원내 곳곳에서 선생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

나 애쓰고 수고하고 계셨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인환자 진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씩 개선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언제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 혼자이니 살~살~이요 ^^

내실을 다짐과 동시에 차년도에는 해외 전시회 참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환자만으로도 의료기기 가동률 1위, 외래환자 진료 대기가 1개월까지도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외거주 외국인 환자까지 오게 된다면! 의외의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겠죠?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메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당장 해외거주 외국인을 몰랄 듯이 밀어 넣기 보다는 기초를 튼튼히 세워 국경없는 의료에 우리 구로병원도 한발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글로벌 의료클러스터는 국제진료파트만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 할 주제를 기억해 주시고, 큰소리, 단소리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본 원고에서 '외국인환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환자를 지칭하며,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 혹은 '해외거주 외국인환자', '해외환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류하는 '외국인환자'를 의미합니다. 



여름철 주의해야 할 질환

여름철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유행성 눈병 환자수 증가에 따른 예방 및 행동 수칙 준수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에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유행성 눈병인 급성출혈성결막염과 유행성각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입니다. 학교나 합숙 등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 등 유행성 눈병이 유행

기 좋은 장소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파경로

- 직접 신체적 접촉: 눈 분비물 등
- 눈을 손으로 만지고 손을 통해 옮길 수 있어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 개인용품을 통한 간접 접촉: 수건, 침구, 세면기구 등
- 수영장 등 물을 통한 전파

여름철 유행하는 눈병의 종류와 특징

유행성 각결막염(Epidemic Kerato Conjunctivitis, EKC)

- 유행시기: 늦여름부터 초가을 사이, 산발적 유행
- 잠복기: 5~7일
- 증상: 양안의 출혈, 동통, 눈곱, 이물감, 눈물, 결막부종 등
- 경과: 3~4주간 증상이 지속됨
- 전염력: 발병 2주 정도까지 전염력이 있음

급성출혈성결막염(Acute hemorrhagic conjunctivitis, AHC)

- 유행시기: 늦여름부터 초가을 사이, 약 5년~10년 주기로 유행
- 잠복기: 8시간~2일
- 증상: 갑작스러운 이물감, 출혈, 눈부심, 눈물 등
- 경과: 약 2주에 걸쳐 점차 가라앉음
- 전염력: 증상발생 후 적어도 4일간 전염력이 있음

치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안약이나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균제 안약을 점안할 수 있습니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합니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습니다.
-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합니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습니다.
-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합니다.
- 안과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합니다. 🚫



유행성각결막염 FAQ

Q. 무엇이 유행성 눈병을 일으키나요?

A. 유행성 각결막염의 원인은 아데노바이러스 8형 및 19형 등이며 엔테로바이러스 70이 이폴로눈병이라고 알려진 급성 출혈성결막염의 원인체입니다.

Q. 증상은 어떤가요?

A. 처음에는 눈에 이물감이 들고 눈이 충혈되며 눈곱이 심하게 끼며 붓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막염은 대개 3~4주간 지속되며 어린이의 경우는 더욱 심하게 앓아 각막 표면의 상피세포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급성 출혈성결막염은 짧은 잠복기(8시간~2일)와 짧은 경과기간(5~7일)을 가지는 것이 유행성 각결막염과 다른 점이며 갑작스런 충혈 및 통증등과 함께 혈흔이 보이는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Q.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특별한特效약이 현재까지는 없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2차 감염의 방지 및 대증요법을 시행하면 약 보름정도 고생한 후에 호전되는데 처음 몇일은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면 낫는 병이므로 꾸준한 안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면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눈병에 걸리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어느 기간 동안은 고생을 해야 하므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Q.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 공기전염은 되지 않으므로 환자를 쳐다보면 해서 옮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전염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쓰던 수건이나 세면대 등을 따로 쓰게하고 균이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도록 하며 항상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 중에 환자가 있을 때 안약을 미리 넣으면 혹시 예방이 되지 않나요?

A. 눈병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안약을 넣는 것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바이러스에 오염된 안약을 넣어 주어 눈병을 생길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Q. 치료 중에 평소와 같이 생활해도 되나요?

혹시 술을 마셔도 괜찮은가요?

A. 식사시 특별히 가려야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맥주 한잔으로도 심하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음주만은 삼가는 것이 좋고 과로를 피하고 수영장 등의 대중시설의 이용은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 원제거자: 이혜림 간호부 / 출처: 질병관리본부]



생생건강

내 몸에서 돌이 자란다? 담석증

우리의 몸 곳곳에는 돌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흔히 결석이라고 한다. 그 중 쓸개(담낭)에 생긴 결석을 담석이 라고 하며, 담석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담석은 담석이 있는 위치에 따라 담낭 담석과 담도 담석으로 구분된다. 보통 담낭의 담석은 70~80%가 무증상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우측 위 복부 및 명치 통증이며 소화불량,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래서 급체, 위염으로 생각되기 쉽다. 담도 담석의 경우에는 담낭 담석과 비슷하게 복통을 많이 호소하나 담석이 담도를 막아 간으로부터 담즙 배출을 못하게 됨으로써 황달이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더불어 간기능 검사에서도 이상이 나타나 간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증상이 있는 담낭 담석은 치료가 필요한데 통증의 양상에 따라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다. 비수술

적 치료로 담석을 녹이는 용해요법이 있으나 가능한 대상이 아주 제한적이고 재발률이 높아 드물게 이용되는 편이다. 담도 담석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있으며 자연배출도 어려워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보통은 내시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로 치료한다.

담석증의 경우 예방법에 대해 확립된 것은 없으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자주하지 않고, 식사를 거르는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피하며 급격한 체중 변화도 조심해야 한다.

[도움말: 내분비내과 김효정 교수]



일사병, 열사병 빠른 대응이 관건!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열성질환에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들 수 있다.

일사병은 장시간 고온에 노출돼 열이 체외로 잘 배출되지 못해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일사병이 발생하면 심박동이 빨라지므로 어지럼증과 두통이 발생하며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심할 경우 구토나 복통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일시적으로 실신하기도 한다.

열사병은 심부체온이 40도 보다 더 상승하여 일사병과 달리 발작, 경련, 의식 소실 등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중추신경계 이상과 더불어 신장이나 간의 장기 기능 손상이나 쇼크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고온, 고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보다도 빨리 체온을 낮

추는 것이 중요하다. 서늘한 곳으로 이동한 후 젖은 수건이나 차가운 물을 이용해 체온을 떨어뜨리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해 안정을 취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열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기온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어야 한다. 🚫

[도움말: 가정의학과 김진욱 교수]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 개소



고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은 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변화하는 의료기기 산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센터장 이흥만)를 7월 18일(화) 개소했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란 기기의 설계를 검토하고 편의성 위험 요소, 사용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적합성 테스트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 환경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체적인 테스트로 만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 개소로 의료기기 개발 업체들은 수준 높은 검사를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는 공증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고대 구로병원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시뮬레이션 테스트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확인 캠페인 펼쳐



고대 구로병원 적정진료관리팀부장 박홍석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Q 활동의 일환으로 '환자 확인 캠페인'을 펼쳤다.

환자 확인 캠페인이란 진료나 수술 전 정확한 환자 확인을 통해 의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병원을 꿈꾸며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에게는 진료 등록증을 가져올 것을 권하고 직원들에게는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백린 병원장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며 "우리 모두 조금씩만 신경 쓰고 실천하여 믿음 주는 고대 구로병원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확한 환자 확인이란 이름과 등록번호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진료 접수·수납 전 의약품·혈액제제 투여 전 이송·검사 시행 전 진료·처치 시술 전에 각각 실시해야 한다. 

고대 구로병원-환경부, 석면질 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 체결



고대 구로병원이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환경부와 '석면질 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체결했다.

석면질 피해자 의료비 후불제 협약은 정부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수도권에서는 고대 구로병원이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석면질 환자들은 수납을 완료한 뒤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의료비 청구 신청을 하여야만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고대 구로병원을 찾는 석면 질환자들은 병원 치료 후 수납 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운 현금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협약을 체결한 병원은 고대 구로병원을 포함해 보령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흥성의료원 등 총 5개 병원이다. 

고대 구로병원, 하계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교육 성료



고대 구로병원은 7월 24일(월) 의생명연구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하계 학생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로병원 교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자녀로 구성된 학생 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 병원 내 감염관리 활동과 자원봉사자의 올바른 자세, 배치 부서 등에 대한 설명들로 이루어졌다.

하계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활동은 학생들의 자아성취감과 만족감을 고취시키고 사회 참여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체험교육의 장이 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봉사자들은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외래, 임상 진료과, 병원학교 등 다양한 병원 내 부서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내일을 기약하는 헤어짐, 일반직 퇴임식



고대 구로병원은 7월 26일(수) 임병동 10층 제 1회의실에서 2017년도 일반직 퇴임식을 갖고 정년퇴임을 맞은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퇴임식은 특수간호팀 오미숙 팀장과 진단검사의학과 최재열 부팀장 특수간호팀 조선옥 수간호사 세 명을 위한 것으로,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구로병원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소임을 다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는 자리였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퇴임식에는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인생의 제 2막을 맞이한 소중한 동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이날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이들은 30년간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및 고대 구로병원에서의 시간을 마무리 지었으며, 퇴임식 전날에는 송별회를 가지고 보직자들과 새로운 발령자, 팀원들이 지리한 가운데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눴다. 

중복 더위, 꿀맛 같은 원장님 수박!



고대 구로병원은 7월 20일(목) 더위에 지친 교직원들을 위한 깜짝 수박 선물을 선사했다.

이날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원내 각 부서 교직원들에게 전달됐다.

은백린 원장은 "연일 내리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건강이 곧 환자의 건강인 만큼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박 선물을 받은 교직원들은 "시원한 수박 선물에 업무 피로가 녹는 듯하다"며 "동료들과 함께 한 수박 나눔에 더위도 나뉘는 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9회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 국제 심포지엄' 성료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이흥만)는 7월 12일(수) 오후 1시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제9회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국제 심포지엄(The 9th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심포지엄에는 김효명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현철 단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정 이사장, 한국식품안전처 오현주 과장을 포함해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흥만 센터장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내·외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국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진출과 개발을 위해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는 2015년 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특화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로 지정돼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으며, 매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칭찬은 훈련이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남에게 칭찬받고 기뻐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칭찬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 칭찬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자신의 칭찬 능력을 테스트 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릴 테니 여러분도 한번 사례를 읽어 보고 칭찬거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① 철이는 오늘학교 끝나고 친구와 함께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 ② 일요일 아침 철이는 12시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 ③ 철이가 학교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지난 학기보다 떨어졌습니다.
- ④ 길을 가다가 철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안 돼” 하니 “그러면 다른 장난감을 사줘”라고 합니다.

전 이 사례를 보면서 칭찬거리는 한 가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필자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철이는 1. 걷는 것을 즐길 줄 아는 활동성, 학교 끝나고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는 성실성 가진 아이 2. 할 때 하고 싶 때 싫 줄 아는 아이 3. 정직한 아이 4.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원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바램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칭찬할 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 칭찬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초 4학년인 저의 딸은 자신이 수학을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하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수학을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학습지, 수학동화, 학원 등 이것저것을 시키며 잘하기를 바랬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딸은 더 힘들어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르쳐 보니 우리 딸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난 못하는 아이”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칭찬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먼저 올리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는 멍해지고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못된 말로 아이 자존감을 깎아 내렸을까? 자책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칭찬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풀려고 노력해봤네 ~ 포기하지 않은 우리 딸 기특하다.” “하기 싫었을 텐데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풀었네. 넌 정말 성실해.” 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적이 아니라 행동을 칭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딸이 학교에서 수학단원평가를 보았는데 두문제가 헛갈리긴 했는데 잘 본 것 같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자랑을 하는데 정말 기뻐더라고요. 수학 성적 올리겠다고 몇 년을 난리 쳤는데 칭찬 몇 개월로 아이의 목소리가 달라지다니 칭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아직은 저도 위 사례를 보고 칭찬 거리를 찾지는 못하지만 칭찬의 힘을 경험했기에 전 앞으로도 칭찬훈련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칭찬은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멋진 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칭찬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저와 같이 칭찬의 위대함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통증시술실 임주희]

환자별 자가 진단법

여러분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냉방병

냉방병은 냉방기를 오래 틀어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해지고 외부와의 온도 차가 심해져 발생하게 된다. 냉방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두통, 피곤, 집중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방치하면 인후염, 여름 감기, 기관지 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냉방병이 의심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냉방병, 자가 테스트로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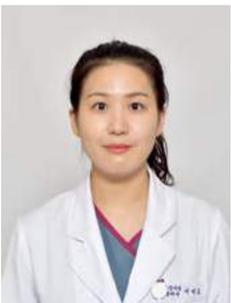
냉방병 자가 진단 테스트

01 가침, 재채기, 콧물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	02 몸이 나른해지고 쉽게 피곤하다	03 손발이 잘 붓는다
04 소화 불량, 복통, 설사 가 있다	05 여성의 경우 생리통, 생리불순이 있다	06 관절이 무겁고 통증을 느낀다
07 어지럽고 두통이 있다	08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 장시간 있었다	

냉방병 예방하는 에어컨 사용법

- 에어컨 사용 시 온도는 대체로 22~26℃ 사이가 적당하다.
- 온도설정을 처음에는 낮추었다가 서서히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에어컨을 틀 때는 실내외 온도 차이는 5~6℃ 이내로 하고, 사람이 적은 방향으로 에어컨 송풍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 에어컨의 찬 공기가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고, 긴 소매의 덧옷을 입도록 한다.
- 에어컨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필터는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해야 각종 균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 에어컨은 적어도 2-4시간마다 5분 이상은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 좋다.

칭찬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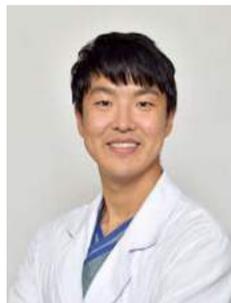


111호 칭찬열차 주인공

순환기내과 이 미 로

간호부 윤종일님 이 순환기내과 이미로님을 추천합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로 응대하시며 먼저 병원 직원 분들께 인사하는 모습과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111호 칭찬열차 주인공

진료부 김 세 운

72병동 조정이님이 진료부 김세운님을 추천합니다.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밝고 적극적인 태도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글 사진 원내기자 최원의 핵의학과]



우리병원 칭찬열차 출발 : 전 직원이 칭찬열차에 탑승할 그날까지

08

August 2017

월경강좌
02-2626-1540

당뇨강좌
02-2626-1091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1	2	3	4	
	수요웰빙강좌 (금연)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당뇨교육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7	8	9	10	11
	수요웰빙강좌 (비만과 대사증후군)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당뇨교육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14	15	16	17	18
	수요웰빙강좌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당뇨교육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21	22	23	24	25
	수요웰빙강좌 (림프부종 및 임환자 건강관리)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당뇨교육 (목표혈당과 혈당측정법, 발관리, 당뇨병과 사회복지 정보)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28	29	30	31	9/1

09

September 2017

월경강좌
02-2626-1540

당뇨강좌
02-2626-1091

신장내과
02-2626-1791

ADHD부모교육 정신건강의학과
02-2626-1230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4	5	6	7	8
		수요웰빙강좌 (금연)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당뇨교육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식사요법)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11	12	13	14	15
		수요웰빙강좌 (비만과 대사증후군)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당뇨교육 (당뇨병 약제의 이해와 복용법, 인슐린 주사법, 저혈당관리)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신장내과교육 (만성콩팥병과 투석) 의생명연구소 1층 [대강당] 오후 2시
18	19	20	21	22
	ADHD 부모교육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신관 8층 [소회의실] 오후 1시	수요웰빙강좌 (골다공증 및 예방접종)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당뇨교육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25	26	27	28	29
	ADHD 부모교육 (도움이 되는 치료) 신관 8층 [소회의실] 오후 1시	수요웰빙강좌 (림프부종 및 임환자 건강관리) 신관3층 [암병원 협진실] 오후 2시	당뇨교육 (당뇨병의 운동요법,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나의 하루 섭취량) 신관 지하층 [시청각세미실] 오후 2시	

건강한 식탁

오븐 없이 간단하게, 떠 먹는 고구마 피자!

8월은 고구마가 제철이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항산화 능력이 우수하고 성인병 예방 효과, 혈압 강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달콤한 맛 덕분에 아이들 영양간식으로도 인기 만점이다. 고구마를 이용한 간단하고 맛있는 노오븐 떠 먹는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보자!



재료

찐고구마 1개, 양파 1/2개, 당근 3/4, 햄 조각, 파프리카 3/4, 스위트콘, 토마토소스 2스푼, 모zzarella 치즈 한줌, 파슬리가루, 버터 한 조각

[떠 먹는 고구마 피자 만들기]

1. 준비한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2. 스위트콘은 물을 빼주고 고구마는 으개준다.
(+취향에 따라 우유와 꿀을 추가하면 좀 더 부드럽고 단맛을 낼 수 있다)
3. 버터 한 조각을 녹여 그릇 골고루 발라준다. +올리브유로 대체 가능하다
4. 으개 고구마를 그릇에 편편하게 펴 담고 토마토 소스를 발라준다.
5. 손질이 끝난 채소와 햄, 스위트 콘을 그 위에 올린다.
6. 모zzarella 치즈와 파슬리 가루를 적당히 뿌려준다.
7. 전자레인지에 넣고 4분 동안 돌린다.
(+익힘 정도에 따라 1~2분 더 돌려 준다)



[도움말: 고대 구로병원 영양팀]

